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돕는다

도교육청, 100명 이상 공립단설유치원 대상 보건교사 배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00명 이상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유아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대규모 단설유치원이 늘어나면서 보건교사의 필요성이 절실했지만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 미비로 보건교사 배치가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병설 유치

원들이 보건교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해 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울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원아수 216명 12학급인 전주아름유치원에 보건교사(기간제)를 배치한데 이어 올해 군산바다유치원, 익산맑은샘유치원에

2명의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군산바다유치원은 148명에 8학급, 익산맑은샘유치원은 108명에 10학급 규모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9억9천만원을 들여 도내 공립단설유치원 21곳 모두 보건교사를 배치해 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보건계

획을 수립 추진하고 각종 질병 예방 처치 및 보건교육, 유아투약관리, 미세먼지 관련 예방지도, 유아와 교직원 의 건강관찰, 건강상담, 건강평가, 유치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의 안전사고 발생시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문적인 보건인력 배치로 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과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앞장’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의 민주 시민교육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 3월 1일 시행된다.

민주시민교육과 신설은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과 동시에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민주시민교육은 하나의 교과목이 아닌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해야 한

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시민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학교생활교육·학교자치 및 교원단체 등 3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인성건강과·학생인권교육센터·교원인사과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이동 배치했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인성교육 △평화통일교육 △환경생태교육 △세계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이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진행하던 업무들을 한 곳으로 집중해 지원·추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실생활 문제해결력 기르는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추진

도교육청, 상시수업나눔마당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창의·융합 과학교육 확산을 위한 2019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지원 계획을 밝혔다.

STEAM은 S(과학) T(기술) E(공학) A(예술) M(수학)의 약칭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소양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도교육청은 융합인재교육 수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상시수업나눔마당 운영, 교실맞춤형 수업자료 개발 등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STEAM 수업 활성화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현장 교사의 수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STEAM 수업을 지원하고자 수업지원단을 모집·운영한다.

모집 인원은 초·중·고 교사 총 8명이며 초등학교 4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이다.

모집일정은 오는 13일까지며, 세부 내용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063-239-3411)로 문의하면 된다.

수업지원단이 꾸러지면 3월부터 11월까지 STEAM 사업 운영 컨설팅과 수업 상시 컨설팅, STEAM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융합인재교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것”이라며 “교원들이 STEAM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연휴 마지막 날 보리밭 가꾸는 농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상공에서 바라본 익산시의 한 농가에서 농부가 보리밭을 가꾸며 연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 공고

응시 희망자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처에 원서 제출

전북교육청은 2019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오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처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졸 응시자는 전주, 원주를 제외한 12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중졸·고졸 응시자는 전북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접수가 어려운 응시자는 내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http://homeedu.tje.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수의 경우 1일 단축된 18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니 주의가 요구된다.

응시자들은 원서접수를 위하여 최종학력증명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장소는 3월 20일 공고 예정이며, 시험은 4월 13일에 시행되고, 합격자는 5월 9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교원인사과(☎063)239-3308)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행정직 전입희망자 공모… 내일까지 접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분청에서 근무할 교육행정직 전입자를 공개모집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탁하고자 교육행정 6~8급 전입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6급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7급은 현 직급 경력 5년 이내인 사람, 8급은 해당 직급 1년6개월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입을 희망하는 교육행정직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자기소개서, 주요업무실적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도교육청 총무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평가 방법은 6급은 보고서 50%·면접 50%, 7~8급은 서류 20%·면접 80%로 진행된다.

최종 전입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은 오는 3월 1일자에 맞춰 인사발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각 시군별 과학실 안전 모델학교 운영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각 시군별로 과학실 안전 모델학교를 1교씩 선정, 총 14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실 안전모델 학교는 시도별 과학교수·설비 기준에 적합한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포함한 안전한 과학실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탐구·실험 수업 활성화 의지를 가진 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과학 안전 관련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를

이달 중으로 과학실 안전 모델학교로 선정, 학교당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는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자체 수립해 실천하고, 과학실험실 안전 장구와 설비를 확충하는 등 학교 특성에 맞는 과학실 안전 모델을 적용하게 된다. 또 안전 관련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한 실험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과학교사 실험안전 연수 실시 등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사례 발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지난달 3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1차년도 사업성과를 평가받은 39개의 국립대학들이 모두 참여해, 국립대학 유형별로 거점국립대학, 지역중심대학, 교원양성대학의 39개 국립대학이 5개 권역, 전국단위

로 연계해 고등교육 공공성, 기초학문 보호, 연구역량 강화, 글로벌역량, 대학자율, 네트워크 등 총 6개 영역의 총21개 성과사례를 상호 공유했다.

전주교육대학교 김성환 교수(윤리교육과)는 대학자율 사업영역에서 지역 사회 기반 봉사활동 활성화 과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